

과반수 "대학생활 잘 할 자신있다"

동아리 선호 취미 - 학술 - 봉사 - 종교 - 사회문제 "전공은 평생 학문" 65% ... 해외 유학도 일부 관심

학생생활연구소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우리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1983년 이래 매년 신입생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주된 목적은 본교 신입생의 생활환경, 개인적·사회적·경제적 특성, 대학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하며, 또한 대학의 정책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은 물론 자아실현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며,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교육 및 발달차원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제재하며 지속적인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도 그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입학 직후에 조사

지난 해까지의 조사시기는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경험한 5~6월이었다. 올해부터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 입학 직후인 3~4월이었다. 또한 서울과 수원캠퍼스가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서울 캠퍼스의 조사대상 학생이 되는 재학생 중 2천34명 중 설문조사대상은 1천8백50명이었으며 분석 대상자는 1천5백66명으로 회수율은 81.4%였다. 수원캠퍼스의 조사대상 재학생은 2천4백7명 중 설문조사대상은 2천2백90명이었으며 실제 조사분석 대상자는 1천6백53명으로 회수율은 72.2%였다. 다음은 캠퍼스별 설문조사 내용이다.

서울캠퍼스

94학년도 신입생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58.6%, 여학생이 37.5%, 무응답 3.9%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단대는 법대(7.4%), 정경대(15.7%) 순이고 가장 높은 단대는 공대(87.4%), 사범대(77.2%), 유대(72.1%), 문리대(43.5%) 순이었다. 여학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재수여부를 알아본 결과 재수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61.2%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1년 재수는

20.3%, 2년 재수는 5.0%, 3년 재수는 3.7% 순이었다. 남학생의 55.6%와 여학생의 73.4%가 재수를 안했으며, 1년 재수를 한 남학생은 25.1%이고 여학생은 13.8%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사범대(73.7%), 가정대(73.0%) 순으로 재수를 안했으며, 1~2년의 재수생의 비율은 1년 단대는 35.6%, 2년 단대(33.3%), 법대(29.5%), 학대(27.7%) 순이었다.

신입생들의 전공은 기독교(30.3%), 불교(12.5%), 천주교(10.4%) 순으로 나타났다. 공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은 41.8%였다. 기독교의 전공은 남학생(27.8%, 9.1%)보다 여학생(24.3%, 12.8%)이 더 많이 믿고 있다. 불교는 남녀비율이 동등한 12.6%였다. 단대별 비교에서는 유대의 경우 기독교(57.1%)와 천주교(13.5%)로서 불교(9.8%)를 압도한 반면, 한교대의 경우 불교가 21.5%, 기독교 10.8%, 천주교 12.3%였다.

가정환경 매우 좋아

가정분위기에 대해서 비교적 또는 매우 좋다 답한 신입생이 70%에 달했고 보통이 17.9%, 비교적 또는 매우 나쁘다고 답한 학생은 5.2%에 불과하여서 신입생들의 가정 분위기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물어본 결과 과반수를 약간 넘는 53.2%의 신입생들이 비교적 매우 자신 있다고 답했고, 보통이 33.2%, 비교적 자신없다고 12%, 매우 자신이 없다고 2.2%에 달했다. 여학생들은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39.2%)이 남학생들의 비율(29.5%)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자신감이 덜했다. 이는 여학생을 위해서 대학생활을 자신있게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학기 초기 또는 그 이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단대별로 보았을 때, 유대와 제대의 신입생들이 자신이 없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사범대, 약대, 가정대 신입생들의 자신없는 비중은 비교적 높았는데 이들 대학의 여학생 비율

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학과 이외의 활동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알아본 결과, 52.5%의 신입생들의 취미, 교양동아리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술동아리(17.1%), 봉사동아리(8.4%), 종교동아리(4.1%), 사회문제동아리(2.8%) 순이었다. 남학생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무관심했다. 제대 및 단대별로는 봉사동아리에 더 관심을 보였다.

현재 선택한 전공을 지속할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66.5%의 신입생이 끝까지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원하던 학과의

대체 재대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가진 않겠다(4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찾아가진 않겠다(26.0%), 혼자서 해보려 안되던 건다가 18.7%, 기꺼이 찾아가겠다가 5.1%였다.

이는 일단 70% 이상의 신입생이 학생생활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의 상당수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연구소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전문 상담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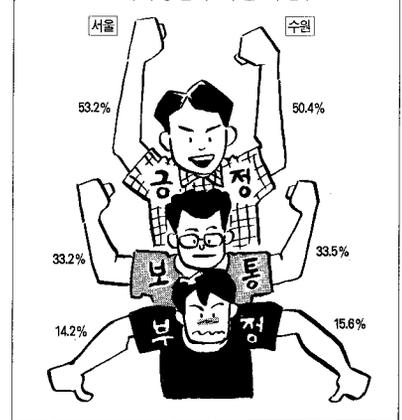
수원캠퍼스

94학년도 신입생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72.1%, 여학생이 24.8%, 무응답 3.1%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단대는 공과대학(6.1%), 체육과학대학(10.6%) 순이고 가장 높은 단대는 의과대학(61.2%), 산업대학(42.1%) 순이었다. 여학생 비율은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사수도 감내" 42%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재수여부를 알아본 결과 재수를 경험하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



주요(12.2%)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은 41% 였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남학생(각 27.4%, 11.2%)이 여학생(각 36.1%, 16.3%)보다 더 많았다. 단대별로 살펴보면 때, 체육과학대(39.4%)와 산업대(37.9%)가 기독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의과대(25.0%)가 가장 높은 반면 산업대(9.8%)는 가장 낮았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체육과학대(30.2%)가 가장 낮았고, 공대(47.4%)가 가장 높았다.

가정분위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또는 매우 좋다고 답한 신입생이 71.3%에 달했고 보통이 16.5%, 비교적 또는 매우 나쁘다고 답한 학생은 5.0%에 불과하여서 신입생들의 가정 분위기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물어본 결과 과반수를 약간 넘는 53.4%의 신입생들이 비교적 또는 매우 자신 있다고 답했고, 보통이 33.5%, 비교적 자신없다고 12.9%, 매우 자신이 없다고 2.7%에 달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감이 없었다. 이는 여학생을 위해서 대학생활을 자신있게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학기 초기 또는 그 이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결과이다. 단대별로 보았을 때 체육과학대가 57.7%로 가장 자신감이 높았고, 의과대학,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등은 대대로 소심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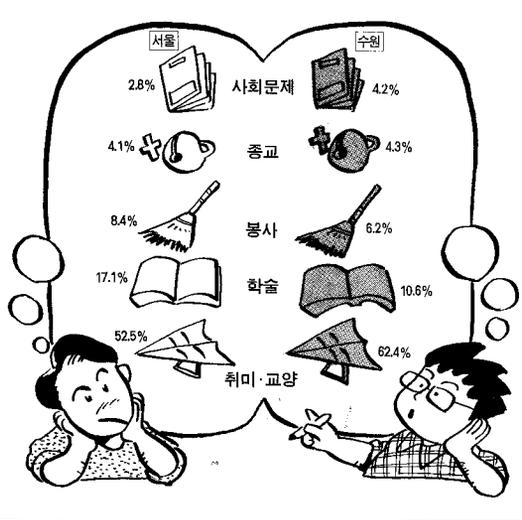
전공학과 이외의 활동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알아본 결과, 62.4%의 신입생들이 취미·교양동아리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술동아리(10.6%), 봉사동아리(4.2%), 종교동아리(4.3%), 사회문제동아리(2.8%) 순이었다. 남학생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과학의 활동에 대해서 더 무관심했다. 단대별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단대별 분포를 찾아본 체육과학대는 종교동아리에 무관심한 동시에 봉사동아리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과학대는 사회문제동아리에 비중이 컸다.

생활연구소 거러놓으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가진 않겠다(4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찾아가진 않겠다(26.0%), 혼자서 해보려 안되던 건다가 20.6%, 기꺼이 찾아가겠다(6.2%) 순이었다. 이는 일단 70% 이상의 신입생이 학생생활연구소 방문할 예정의 상당수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연구소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전문 상담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생생활연구소의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찾아가는 데도 비용이 될 것 같아서(28.8%)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이용방법을 몰라서(23.4%), 용기가 나질 않아서(20.2%), 상담에 대한 지향감이(13.5%), 다른 사물을 알게 될까 두려워서(3.7%)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자신의 담당문제에는 의논해 단대 연구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홍보와 더불어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학과 외의 활동 희망 분야



무전공(8.4%), 해외유학(6.0%), 대학원에서 전과(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더 많은 학생이 전공을 끝까지 계속하겠다고 했고, 해외유학을 기졌다고 한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단대별로 보았을 때, 문리대와 사범대는 끝까지 계속 전공을 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범대의 경우,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가장 많아서 8.8%나 되었다. 해외유학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대학은 음

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학생생활연구소의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찾아가는 데도 비용이 될 것 같아서(2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용방법을 몰라서(22.1%), 용기가 나질 않아서(17.8%), 상담에 대한 지향감이(13.0%),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두려워서(4.0%)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자신의 담당문제에는 의논해 단대 연구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 않은 학생의 비율은 29.2%에 이었고, 1년 재수는 12.8%, 2년 재수는 12.2%, 3년 재수 이상은 41.5%이었다. 재수를 2년 이상한 학생들은 53.8%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3년 재수 이상도 41.6%나 달했다. 재수를 경험한 남녀 비율을 알아보면 2년 재수까지는 여학생 비율이 높지만 3년 재수 이상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 여학생들은 3년 이상 재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29.2%), 불교(12.8%), 천

제회 철강 논문상

1. 공모지역
●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생

2. 공모서류
● 논문 : A4 용지 20매 내외, Word Processor 작성 (문자크기 10, 12, 14, 16, 18, 20, 24, 28, 36, 48, 72, 96, 144, 180)
● 재학생의 경우: 연구보고서 2매 (A4)

3. 논문주제
● 철강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본의 개발 주제
● 사회과학: 철강의 환경적 확보 및 평가(환경영향, 국제화영향, 신소재개발, 철강 등 일반주제)
● 철강의 철강의 미래와 환경친화적 철강
● 철강기술: 공업재료, 컴퓨터, 제어공학, 신소재, 전자·화학, 에너지, 신소재, 환경친화적 등 연구 주제
● 예시: 강구조, 교량용 강재의 특성연구 및 요구수준에 대한 고찰

4. 시상

구분	논문 수	부 상
최우수상	1명	● 상금 및 부상 1,000천원
우수상	2명	● 상금 및 부상 500천원
장학상	3명	● 상금 및 부상 300천원
입선 상	5명	● 상금 및 부상 100천원

● 강연자에게는 포상제출 및 강연회 참가 희망서 제출
● 논문상권 전래하여 참가 기쁨을 증진

5. 논문제출
● 제출기간 : '94.12.15 ~ '95.1.15(한국도보에 한함)
● 지 출 처 : 100-191 서울시 중구 동대문로12가 10층 POSCO 경영기획실 연구개발팀

6. 기타
● 영문요약은 철강논문서 미발표 전까지 POSCO에
● 심사위원의 추천은 직제에 의하며, 당사는 시제간행물에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기타 문의사항은 POSCO 경영기획실 연구개발팀 문의하심 (Tel. 02-7594-431 ~ 3)

새로운 생각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포스코의 함께 철강강국의 새 가능성을 제시할
대하인 여러분의 참신한 생각을 기다립니다.